

코퍼스기반 CALL 연구 동향: 질적메타분석*

김 혜 영
(중앙대학교)
전 수 인
(중앙대학교)

Kim, Heyoung & Chun, Sooin. (2009). The trend of corpus-based CALL research: A qualitative meta-analysis of seventy-one selected studies. *English Language Teaching*, 21(2), 283-310.

This paper presents a qualitative meta-analysis of 71 corpus-based CALL studies for the last 15 years (1993-2008). In this study, “corpus-based CALL” research is defined as all the corpus studies that provide information and implications for L2 education. For extensiv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mploys an analytical framework of corpus-CALL research scope including four categories: 1) tools and types, 2) instructional approaches, 3) language recognition focus and 4) effectiveness. The purpose of this meta-analysis i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what, how or to whom” to language teachers who want to utilize corpus for their instruction and also to suggest some insightful direction for researchers in this area.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what corpus types and concordance tools have been used in corpus-based CALL? Second, what instructional approaches have been employed in corpus-based CALL? Third, what pedagogical implications of using corpus have been driven for L2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rpus-based CALL instruction seems most effective for adult learners in an inductive way of using small corpus data such as writing consultation or self-error correction.

I. 서 론

말뭉치(language chunks) 혹은 디지털 언어데이터(digital language data)로 주로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인식되는 코퍼스(corpus)는 언어학, 응용언어학, 영어교육학은 물론 기타 인접 학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퍼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해주는 문맥색인(concordance) 도구인 콘코댄서(concordancers)가 소개된 이후 코퍼스 언어학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British National Corpus 등과 같은 대형 코퍼스 데이터나 L2 학습자의 코퍼스 데이터 접근 및 수집이 용이해져, 습득 이론, 학습자 오류분석, 중간언어 연구 등의 제2언어학의 이론과 접근법의 정립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코퍼스, 콘코댄스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재분석은 물론이고, 어휘, 작문, 문법지도, 교육과정 설계 등에서 언어형태분석 자료로서, 학습, 교수 도구로서, 수업활동의 매개로서 코퍼스와 콘코댄서는 널리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 코퍼스기반 CALL 연구¹⁾는 지난 수년간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특히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물이 발표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와 학문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코퍼스가 아직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 영어교육 워크숍이나 영어교사 연수 과정에서 코퍼스활용 영어교육에 대한 소개가 가끔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코퍼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연구발표나 현장연구 논문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교육대학원 등 영어교육 관련 연구물 중 코퍼스와 관련된 논문을 조사해보면, 코퍼스를 활용한 교과서 텍스트분석에 주로 국한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코퍼스 활용 영어교육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국·내외 영어 학습과 지도의 자료로서의 코퍼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조사, 비교하여, 여기서 알게 된 정보, 즉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등 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 교사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코퍼스를 활용한 수업을 새롭게 시도하거나, 또한 개선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앞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코퍼스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영어교육을 위한 코퍼스 연구가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논의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 데이터와 코퍼스분석 소프트웨어인 콘코댄서 등을 영어 학습과 지도에 활용하는 연구를 “코퍼스기반 CALL”연구로 정의한다.

1. 코퍼스기반 CALL 연구에서 사용된 툴의 종류, 기능, 방법은 무엇인가?
2. 코퍼스기반 CALL 연구에서 활용된 지도, 학습활동은 어떤 것인가?
3. 지금까지의 코퍼스기반 CALL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결론은 무엇이며, 어떠한 교육적인 시사점이 있는가?

II. 코퍼스기반 CALL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

1. 데이터 추론 학습(Data-Driven Learning)

데이터추론학습(Data-Driven Learning, 이하 DDL)은 코퍼스 기반 CALL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언어학습에 있어서 데이터 추론 학습이란 실제적인 언어데이터를 통하여 영어를 학습하는 귀납적인 방식의 학습을 말한다. 여기서의 실제적인 언어데이터는 물론 코퍼스데이터가 되며, 언어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콘코던스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부상하면서 이 데이터추론학습은 언어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Chan & Liou, 2005; Hadley, 1997; Johns, 1991; Ko, 2005; Lee, 1999; Ma, 1993; Stevens, 1995; Whistle, 1999). Johns(1991)는 DDL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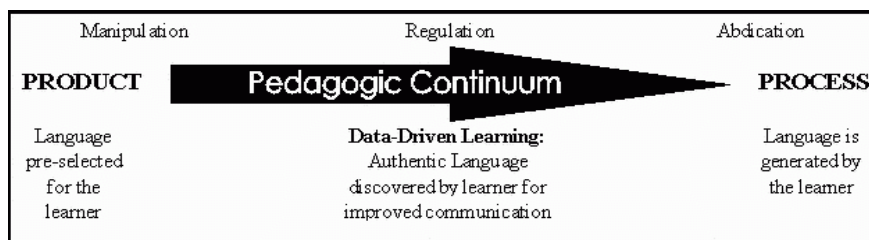
language-learner is also, essentially, a research worker whose learning needs to be driven by access to linguistic data— hence the term ‘data-driven learning (DDL)’ to describe the approach (p. 2).

즉 전통방식과는 달리, DDL에서의 학생은 보다 주도적인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며, 실제적인 자료데이터를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탐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언어패턴과 규칙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추론학습은 문법인식 강화 방식(grammar-consciousness raising method)의 좋은 예로서도 설명될 수 있다. DDL에서 언어데이터를 탐구하고 분석하여 문법규칙이나 영어사용패턴을 발견하는 주체가 바로 학습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Bastone(1995) 또한 제2언어의 문법지도에서 DDL의 강점을 DDL의 학습방식은 산출중심적 방식과 과정중심적 문법지도 방식의 중간정도로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림 1>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통적인 영어교수 방식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은 언어재료를 이미 만들어진 교재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과정중심적인 학습자 중심교수법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언어가 지나치게 중시되어 언어 표준이 지나치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쪽의 약점이 보완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추론 학습법이라는 것이다. 즉 DDL은 실제언어를 활용하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태와 규칙을 학습자 스스로 발견해가는 중간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DDL의 개념은 영어교육의 다양한 학습이론 및 접근법과 상당부분 일치하며 상호관련성이 있다.

그림 1. Baston의 데이터추론학습(Data-Driven Learning) (1995, p. 99)



2. 학습자율성(Learner Aut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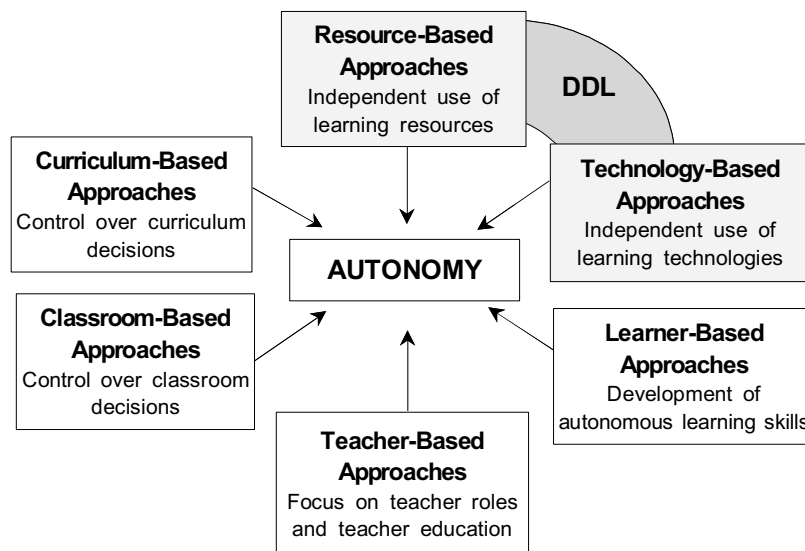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CALL 연구의 배경에는 언어학습의 자율성 이론이 있다. 학습자율성의 이론의 근간은 데이터추론학습의 주장과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Benson(2001)은 학습 자율성이란 학습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학습관리(learning management), 인지과정, 학습내용의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였다. 즉 스스로 외국어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에는 나에게 필요한 학습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언어를 습득해가는 과정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해가는 결정능력과, 이러한 학습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DDL의 학습절차는 Benson의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상당부분 만족시킨다. 코퍼스 데이터를 선정하여 학습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언어를 발견하는 인지과정이 강조되며, 필요한 학습을 관리하는 방식이 세 가지 자율성 영역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DL은 Benson(2001)이 제시한 자율성향상을 위한 여섯 가지 접근방식 중 자원기반 접근법(Resource-based approach)과 기술기반접근법(Technology-based approach)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원기반 접근법이란 학습자스스로 접근 가능한 자료, 실제자료나 활동을 활용하여 언어학

습을 하는 것을 말하며, 흔히 “자가 접근(Self-Access)”라는 용어로 널리 표현된다. 자가 접근방식은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를 제공한다. 학습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코퍼스를 자료로 콘코던스를 활용하여 언어를 학습해가는 과정이 바로 자가 접근 학습에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기반접근법은 주로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ICT를 활용하여 학습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월드와이드웹에서 제공되는 영어 학습자료, 혹은 잠재적인 영어학습 자료인 실제자료(authentic materials)를 활용하여 언어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료 자체가 목표로 쓰인 디지털 텍스트이므로 사실상 코퍼스인 셈이다. 기술기반접근법은 학습자 스스로 언어학습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Benson의 학습 자율성 향상을 위한 여섯 가지 접근방법(2001, p. 112)과 DDL



3. 어휘중심 접근법/어휘중심요목(Lexical Approach /lexical syllabus)

Michael Lewis가 1993년에 처음 소개한 “어휘중심접근법(Lexical Approach, 이하 LA)”은 언어를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언어를 어휘와 문법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단위로

언어를 가르쳐왔다(Won, 2003; 2004). 그러나 LA에 따르면 언어는 “뭉치(chunks)”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생성하는 것으로 본다. Lewis는 어휘의 종류를 4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1) 단어, 2)언어, 3) 고정/관용 표현(fixed expressions), 4) 반고정 표현(semi-fixed expressions) 이다.

LA에 따르면 어휘, 문법 학습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Can you do?”와 같은 형태전환 연습(transformation practice)이 아니라, 많은 샘플데이터를 검토하는 “Can you see?” 즉 이해력 강화(awareness-raising) 단계이다. LA는 주로 실제적인 상황에서 원어민에 의해 생성된 실제적인 텍스트에 주목한다. 실제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빈도가 높은 lexicon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언어 패턴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바로 코퍼스 데이터이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실제자료를 가장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매체가 인터넷이며 이렇게 수집된 텍스트를 모아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콘코덴서와 같은 언어분석 소프트웨어이다. 따라서 LA는 코퍼스 기반 CALL의 기본이 되는 언어학습 접근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의사소통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

코퍼스기반 CALL 연구의 문헌들은 분석해보면, 언어학습방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이들 연구들은 주로 과업에 기반을 둔 지도방식을 채택한다. 문제해결과업을 먼저 제시하고, 학습자가 코퍼스를 분석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한다. 이들 코퍼스 CALL 연구에서는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과업(Ellis, 2004; Long & Crookes, 1984; Willis, 1998)의 기본 속성을 만족시키는 과업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코퍼스 데이터는 문맥화된 실제적 상황을 주고, 의미협상을 유도하며, 인지과정을 통해 결과를 산출한다.

둘째, 코퍼스기반 CALL은 학습자 중심이며, 교사는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코퍼스의 과제는 코퍼스 자료를 학습자 스스로 활용하여, 알고자하는 목표어휘(문법, 혹은 문장구조 등)에 대한 활용정보와 패턴을 스스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코퍼스 CALL은 종종 발견학습으로 설명되기도 한다(Flowerdew, 1996; Stevenson 1995).

셋째, 언어의 습득의 목적이 활용에 있다. 정형화된 규칙이나, 규정적인 어휘정의를 제시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문맥상에서의 의미, 사용법 등을 검토하여 실제 언어사용에 도움을 주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코퍼스는 맥락을 지닌 실제자료이다. 실제성은 의사소통이론에 가장 핵심이 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학습자가 교육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텍스트나, 활동이 아닌 영어 사용자가 실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생산해낸 언어자료이므로 의사소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93년부터 2008까지 15년간 국·내외에서 발표된 총 71편(국내 17편, 국외 54편)의 코퍼스기반 영어교육학 연구자료 논문²⁾이다. 코퍼스 관련된 논문은 수 백편에 달하나, 이들 중 첫째, 콘코던스와 웹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를 활용하였고, 둘째, 영어 학습과 지도 등 교육적 목적으로 하는 연구논문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논문을 찾기 위해서 EBSCO Host, ERIC Database, Willson Web, “DBpia”, “Google scholar”등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엔진을 사용하였으며, 검색어로는 “corpus”, “concordance”, “data-driven learning”, “코퍼스”, “영어교육”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 71편의 연구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속성을 지닌다.

첫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이다. 연구대상 71편에는 저서, 이론서, 학위논문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론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적다는 이유에서 이론적 배경에서만 다루었으며, 결과분석의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국내·외 석사, 박사 학위논문은 접근이 어렵거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제외시켰다.

둘째, 코퍼스와 콘코던스를 제2언어 교육의 자료로서 연구한 논문이다. 언어자체의 분석이나 빈도의 서열을 보여주는 코퍼스 언어학 연구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코퍼스기반 CALL이란 바로 이러한 교육학 범주에 속하는 논문들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주로 코퍼스 분석 도구와 자료의 소개, 외국어교육의 제안, 실험 연구, 사례 연구의 발표이다. 연구대상이 되었던 연구물의 출처는 부록에서 별도로 제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이 되었던 71편의 논문 유형 분포는 그림 3에서 간략하게 도표화 하였다.

2) 분석한 논문 71편의 목록은 부록 참조

그림 3. 연구대상이 되었던 코퍼스 CALL논문(1993-2008)의 유형

코퍼스자료 및 도구의 소개 (국내 2 외국 13편)	실험연구 (국내 9, 외국 35편)
교육적 제안 (국내 5, 외국 6편)	

2. 연구절차 및 방법: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Analysis)

메타분석은 어떤 특정한 연구 주제에 대해 행해진 여러 독립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요약하며, 비교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메타분석은 전통적으로는 메타회귀분석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 통계 공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도출 방법은 연구주제와 검토대상 논문들의 속성에 따라서 기술통계와 자료 분석을 병행하는 질적 메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Rogers(1981)는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이론 수준의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들의 한데 묶어 어디로 가야할지 또한 무엇을 찾아냈는지를 이해하는 지적인 시멘트(intellectual cement) (p. 6)”로 정의하고 있다. 영어교육 영역에서도 상당수의 연구들이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을 이론화 하고 있다(DeWitt-Brink & Rhodes, 1992; Witkin, 1990).

질적 메타분석은 Rogers(1981)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 절차를 따라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검색자원을 검토하여 해당하는 선행연구물을 선정하였다. 둘째, 메타분석을 다각화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항목과 소영역을 결정하였다(그림 4의 분석체계 참조). 셋째, 질적 데이터를 평균값, 확률값 등의 기술적인 통계와 더불어 도표화 도식화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과 정도를 묘사하였다. 다섯째,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여섯째,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와 기술방식은 DeWitt-Brinks와 Rhodes(1992)의 듣기교수방법 질적 메타분석 연구를 참조하였다.

3. 분석 체계(Analyzing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련 문헌과 조사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을 요인 추출하고 이를 세분화된 소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1) 항목 1: 사용 도구

(1) 코퍼스의 유형/ 규모

코퍼스는 그 유형과 크기에 따라 대형코퍼스(large corpus, LC)와 소형코퍼스(small corpus, SC)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백만 단어(token)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대형, 그 이하를 소형 코퍼스로 분류하였다(O'Keeffe & Farr, 2003). 또한 장르의 구분 없이 수집된 것을 LC, 목적, 장르별로 수집된 것을 SC로 나누었다(표1 참조)

• 대형코퍼스

대형코퍼스를 활용한 언어분석활동을 LCC(Large-Corpora Concordancing)로 지칭한다. 대형 코퍼스는 많은 양의 콘코덴싱에 의한 문장이 검색되므로 학습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어휘의 쓰임을 다양한 문맥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검색 결과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표 1. 코퍼스 규모에 따른 유형(O'Keeffe, McCarthy, & Carter, 2007, p. 284)

유형	특성	대표적인 예
대형 코퍼스 (LC)	- 1백만 단어 이상 - 풍부한 검색결과로 다양한 문맥적인 정보제공 - 초급학습자에게 학습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³⁾ American Nation Corpus (ANC), ⁴⁾ British Nation Corpus (BNC), ⁵⁾ Collins Wordbanks Online English Corpus, ⁶⁾ 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English (MICASE)
소형 코퍼스 (SC)	- 1백만 단어 이하 - 다양한 목적의 코퍼스 분석에 용이 - 교재분석, 교수에 주로 활용됨	⁷⁾ Brown corpus, ⁸⁾ 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 English (ICLE), ⁹⁾ Lancaster-Oslo/Bergen corpus (LOB),

3) ANA <http://americannationalcorpus.org/>

4) BNC: <http://www.natcorp.ox.ac.uk/what/index.html>

5) CWOEC <http://www.collins.co.uk/Corpus/CorpusSearch.aspx>

6) MICASE: <http://quod.lib.umich.edu/m/micase/>

7) Brown corpus http://www.essex.ac.uk/linguistics/clmt/w3c/corpus_ling/content/corpora/list/private/brown/brown.html

8) ICLE: <http://cecl.fltr.ucl.ac.be/Cecl-Projects/Icle/icle.htm>

9) LOB: <http://khnt.hit.uib.no/icame/manuals/lob/INDEX.HTM>

- 소형코퍼스

198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보조 언어교육(CALL)분야에서는 소형코퍼스를 활용하여 언어분석활동을 하는 SCC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영어교사와 연구가에 의해 커리큘럼, 교재개발 등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2) 콘코던스 소프트웨어의 종류

- 웹기반 콘코던서(web-based Concordancers)

웹기반 콘코던서는 주로 다량의 코퍼스를 보유한 대형 코퍼스와 콘코던서가 결합된 것으로 웹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BNC, VLC, Webcrop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장점으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쉽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대형코퍼스를 보유하고 있어, 결과가 풍부하고 신뢰할만하다는 점이다.

- 설치형 콘코던서(PC-based Concordancers)

콘코던서의 다른 유형은 설치형 콘코던서이다. 소프트웨어에 분석도구만을 제시하고 있어 단순하며, 자신의 PC에 설치하여 활용하게 되어있다. 분석을 위한 코퍼스는 사용자 스스로 수집해야하는 점이 불편하나,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나 연령, 흥미에 맞는 코퍼스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표 2. 콘코던스 소프트웨어의 종류

콘코던스 유형	특 성	대표적 소프트웨어의 예
웹기반 콘코던서 (Web-based concordancers)	제시된 코퍼스를 활용 대형 코퍼스 구축 온라인 접속 상태에서 검색 가능 검색을 위한 연구자의 개별적 노력을 최소화	¹⁰⁾ Corpus Concordance English, ¹¹⁾ Just the Word, ¹²⁾ VIEW, ¹³⁾ Web As Corpus, ¹⁴⁾ VLC Web concordancer
설치형 콘코던서 (PC-based concordancers)	연구자 스스로 코퍼스를 수집 소형코퍼스 구축 목적, 사용자 요인, 텍스트종류 에 따른 다양한 코퍼스 구축가능	Concordance, KWIC Concordance, Microconcord, MonoConc, Wordsmith Tools,

2) 항목 2: 학습 지도법

코퍼스기반 CALL에 있어서 효과성을 검토하였던 학습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떠

10) Corpus Concordancer English: http://www.lexutor.ca/concordancers/concord_e.html

11) Just the Word: <http://www.sle.sharp.co.uk/JustTheWord>.

12) VIEW for BNC: <http://corpus.byu.edu/bnc/>

13) WebAsCorpus: <http://webascorpus.org/searchwac.html>

14) VLC Web concordancer: <http://www.edict.com.hk/concordance/WWWConcappE.htm>

한 것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다양한 관련문헌과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학습지도법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소분류는 학습제시순서이다. 즉 코퍼스 학습지도(어휘, 문법)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제시방식이 귀납적이었는지 연역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분류는 과제의 형식이다. 코퍼스 CALL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과제가 어휘중심 교수법에서 말하는 이해중심연습이었는지, 생산중심연습이었는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코퍼스기반 학습, 지도를 위하여 어떠한 학습활동을 사용하였는지 그 종류를 검토하였다.

(1) 학습제시순서

• 귀납적 학습 제시법

귀납적 언어학습제시방법은 한마디로 “예시먼저, 규칙은 나중에.” 유형이다. McDonugh(1986)은 귀납적 언어학습방법을 주장하면서 연역적인 방식인 전통 문법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다양한 예시로 스스로 문법규칙을 검증하기 까지 그 규칙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둘째, 규칙부터 가르치는 것은 규칙을 공식화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요된 공식은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내도록 독려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다”(p. 32). 귀납적 학습제시법은 DDL과 어휘중심학습법에서 주로 제시한 것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내용을 찾아 분석하도록 하는 발견학습방법이다. 즉 콘코덴서 라인을 수집해서 본인이 규칙을 확인하거나, 문법 오류의 확인을 스스로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보다 많은 실제 언어자료를 접하게 되어, 그 목표사항에 대한 이해를 증가하게 된다. Honeyfield(1989)는 코퍼스를 활용지도의 네 단계 귀납적 지도법과 “Look-familiarize-Practise-Create”(Thurstun & Candlin, 1998) 도 널리 알려진 귀납적 접근법이다.

• 연역적 학습 제시법

연역적인 학습 제시법은 전통적 학습방법으로 “규칙먼저, 예시는 나중에”의 유형이다. 교사 중심이 되어 목표학습내용을 제시하고, 규칙에 대한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코퍼스기반 수업에 있어서 연역적인 학습 제시법은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표언어사항의 규칙을 사전에 제시하고, 제시된 콘코덴스 라인을 검토하여 이것이 사실인지 좋은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제시된 언어규칙이나 목표단어들을 학습한 후

준비한 연습 문제지(주로, 빈칸 채우기, 어울리는 어휘 짝짓기 혹은 알아맞히기) 등으로 정답을 맞히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때 학생들은 정답을 찾기 위하여 코퍼스를 활용할 수 있다. 코퍼스자료는 교사가 이미 콘코던스를 추출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학습활동의 종류

- 문맥색인: 학습들에게 스스로 학습 목표어의 콘코던라인을 추출해 내어 콘코던스에서 주로 제공하는 정보인 단어의 빈도, 사용 예등을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활동
- 오류수정: 준비된 또는 본인의 writing의 실수를 콘코던스 라인을 추출하여 확인하여 발견하고, 정확한 형태로 수정하기
- 어휘, 문제만들기: 추출된 콘코던스를 활용하여 학습할 어휘를 정리하거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학습 활동
- 연습문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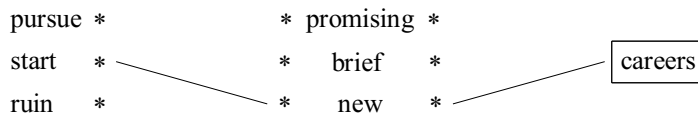
① 빈칸채우기: 비어있는 곳에 어휘를 코퍼스테이터를 찾아 채운다.

예) 빈칸에 정관사가 필요할 경우 the,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X 를 써 넣으시오

1. proud of their command of _____ English language and engage in quite of
2. but it does not mean that _____ everyday language is bad: it is simply the
3. cluded that cerebral dominance for _____ language is established before the
4. abulary is one thing and _____ technical language is another, Vocabulary is
5. avic-speakers. Orthodoxy and _____ Greek language remain the two markers
6. up an emaciated child, and in _____ sign language asked me to vaccinate the

② 짝짓기: 서로 관련이 있는 두 단어, 주로 연어, 숙어관계에 있는 단어끼리 줄을 긋거나, 연결시킨다.

예) 중심어와 어울리는 동사, 형용사, 명사를 골라 줄로 그어 연결하시오.



③ 잘못 사용된 단어 찾기: 전, 후의 단어와 어울려서 함께 올 수 없는 단어를 고르게 한다.

예) 괄호 안의 단어 중 주어진 명사와 어울리지 않는 형용사를 고르시오.

a (junk / hate / fan / telephone) mail

3) 항목 3 : 목표 언어형태

본 연구에서는 목표언어의 형태를 분석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분석한 연구들에서 코퍼스 자료를 활용할 때, 어떠한 언어형태를 지도하거나, 학습하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소분류를 사용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소분류인 ‘언어적 의미결속’과 ‘문법적 형태분석’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들은 사실상 이 분류법으로 명쾌하게 양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교수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1) 언어적 의미 결속:

어휘 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단어, 연어, 반고정표현, 고정표현이 그것이다. 이들의 분류는 문맥적인 의미로 맺어진 짝으로 코퍼스 상에서 함께 나타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들 말뭉치는 문법적으로 설명이 되기 어려우며, 실제로 문법서나 사전에서 잘 설명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 문맥상의 단어(단일어 혹은 복합단어), 연어(동사구포함) 등을 지도하거나, 학습하였다면 그 연구는 이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Lewis(1993, 이론적 배경 3 참조)을 따랐다.

(2) 문법적 형태분석

또한 많은 코퍼스 연구는 문법 즉, 어휘나 문법적 형태의 이해에 주목하였다. 즉, 관사나 전치사, 시제의 일치, 부정사, 동명사 등의 활용규칙이나, 문장상의 용례를 지도하거나 학습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렇게 형태분석을 지도 학습하는 연구는 ‘문법적 형태분석’의 영역 하에 분류한다.

4) 항목 4: 코퍼스 활용목적

(1) 정의적인 효과

이론적 배경과 문헌연구검토에 따르면 코퍼스 CALL은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 학습 흥미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있다. 반면 사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어, 지금까지 문헌에서 어떠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어휘, 문법의 지식향상

이 영역에서는 코퍼스와 콘코덴서를 활용한 어휘 문법, 학습은 실제 지식을 습득가능하게 하였는지, 지식의 이해여부에 대한 연구물의 결과가 분석된다. 또한 그 향상정도가 어떠한지 어떠한 지식이 더 잘 습득이 되었는지, 혹은 더 어려웠

는지 등에 대하여 기술된 논문을 분류한 후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3) 학습지도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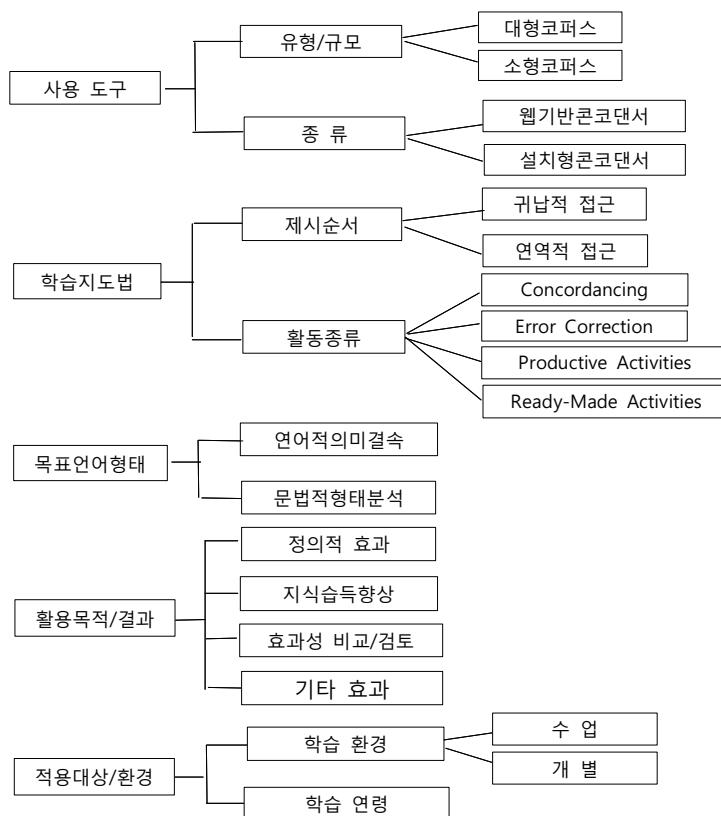
이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학습에 비해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영역에서는 전통적인 방법과의 비교나, 이해의 향상정도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하였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4) 기타 활용 효과

이 영역에서는 위의 세 가지 효과성이외, 코퍼스를 활용한 문맥색인활동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긍정적인(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어떠한 결과가 보고되었는지 내용을 정리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항목별에 따른 코퍼스기반 CALL의 분석체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코퍼스기반 CALL 연구의 분석의 체계(김혜영, 전수인, 2009)



IV.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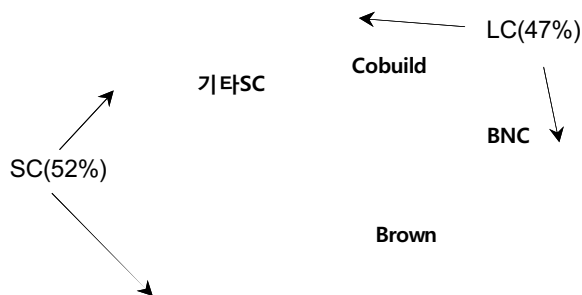
1. 활용된 코퍼스의 종류 언어 형태

검토된 71편의 CALL 연구에서 사용된 코퍼스는 소형코퍼스(SC)가 대형코퍼스보다 다소 많았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총 검토논문 중에서 사용된 코퍼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힌 논문은 53편이며, 이중 LC를 활용한 연구는 25편(47%)이고, SC를 활용한 연구는 28편(52%)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C의 경우 BNC(11편), Collins COBUILD(7편), Brown(4편), MICASE(2편), 기타로 사용하였다. SC의 경우 다양한 코퍼스데이터가 활용되었는데, 이중 학생작문, 학생구어 등을 사용한 학습자 코퍼스가 12편(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L2영어와 L1영어를 비교하는 코퍼스데이터가 6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동일한 출처(ex. Times 혹은 학술논문)만으로 코퍼스 데이터를 구축하여 교육에 활용한 경우가 6편(15%)이 있었는데 구어영어, 신문영어, 방송영어, 대학영어, 전화영어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실험결과를 보고한 논문만 검토한다면 SC사용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즉, 지금까지 코퍼스기반 CALL 연구는 SC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습자의 오류를 이해하고, 원어민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시도가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Ma(1993)가 SCC가 영어교육에 더 효과적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

그림 5. 코퍼스기반 CALL에 사용된 코퍼스의 종류



또한 콘코덴서의 종류를 검토해본 결과, 한 가지 코퍼스 소스를 사용한 경우는 드물며 대개는 다양한 종류의 코퍼스와 콘코덴서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코던스 소프트웨어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설치형 콘코덴서인 WordSmith ToolTM과 Bilingual ConcordancerTM 등 이었으며, 온라인 콘코덴서로는 VLCTM, Collins COBUILDTM, BNCTM 등 이 주로 사용되었다.

2. 학습 지도 방법

학습제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총 45편이며, 이들 중 귀납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하게 귀납적 접근으로 학습 지도한 예는 24편으로 53%에 해당하고, 귀납적 방식과 연역적 방식을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7편(22%)이 있었다. 즉 70%의 CALL 연구가 귀납적인 접근 방식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학습지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많은 문헌에서 제시하는 방식과 일치하여, 데이터추론학습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귀납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한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학습활동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코퍼스를 학습지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문맥색인 활동이었다. 즉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콘코던스 라인을 추출하고, 어휘의 사용빈도를 확인하거나, 문장 내에서의 의미와 활용 예를 스스로 분석하는 활동이다. 둘째, 코퍼스를 활용한 귀납적인 지도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오류교정 활동이다. 조사된 연구에서는 특히 작문활동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많이 쓰였다. 즉, 자신이나 동료학생이 쓴 글에서 발견된 실수를 콘코던스를 활용하여, 발견하고, 스스로 수정하는 활동이다.

한편 연역적인 지도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습문제풀기 활동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영역에 속하는 연구들은 대개 코퍼스데이터를 통하여 제시된 규칙과 활동의 답을 찾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빈칸 채우기와 짝짓기와 같은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 코퍼스 데이터에서 그 답을 찾게 하는 활동을 주로 사용하였다.

학습지도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양성보다는 전형적인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귀납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연습문제 활동이나, 그외 각종 쓰기 활동 등이 소개되어왔으나, 실제 이러한 활동을 실제 학습에 활용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연역적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참신한 시도를 찾지 못하였다.

3. 목표언어 형태

국·내외 코퍼스 CALL 연구에서 보다 주목하였던 것은 언어적 의미결속이었다. 문법형태분석을 위한 코퍼스 활동도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거나 자주 함께 나타나는 단어의 결합을 이해하는 데에 코퍼스를 많이 활용하였다. 목표언어형태를 분명히 밝혔던 45편의 논문 중에서 말뭉치의 의미나 언어적인 결속을 지도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던 활동은 34건이었다(약 63%). 반면 15편의 논문에서는 문법적 형태를 분석하는데 학습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연구 중 두 가지 모두를 목표로 하는 활동도 20건이 있었다(9편은 활동을 한 건 이상 제시). 국내 코퍼스 CALL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문법적 형태분석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 14편의 논문 중 8편이 문법형태분석을 코퍼스 활동목표로 밝히고 있다. 코퍼스나 콘코던스의 기능과 그간에 소개된 다양한 언어활동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언어적 의미결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1편의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국·내외 연구 모두에서 동사구나 동사 전치사의 결합 등의 같은 다수어휘지도가 단일어에 대한 연구나 언어의 연구보다 많았다. 그림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코퍼스 CALL연구는 다수어휘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사구나 동사 전치사의 결합 등을 대표로 하는 다수어의 연구(약 30%)나 두 개 이상의 단어 결합으로 통상 함께 사용되는 언어의 지도나 학습을 위한 연구(22%)에 비해 많은 숫자이다. 특히 국내연구에서 언어지도 및 학습에 관한 연구는 단지 4편에 불과하여, 이 분야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코퍼스 CALL 연구에서 사용된 목표언어형태

collocations

4. 활용목적 및 결과/ 적용대상 및 환경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코퍼스의 효과성을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한 논문은 의외로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연구물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외 논문을 모두 합해도 45편이 채 되지 않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인 효과, 언어지식의 습득, 효과성비교, 학습 자율성 향상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검토 분석한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메타결과를 도출하였다.

1) 코퍼스기반 CALL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첫째, 코퍼스기반 외국어 학습의 정의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이 코퍼스 활용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콘코던스를 사용한 어휘, 문법 학습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총 17편의 논문). 몇 가지 예를 보면, Yoon과 Hirvera(2004)는 ESL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코퍼스를 사용하는 것이 영작문을 하는데 도움이 인식하였고, 작문실력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Chen, Warren과 Xun-feng(2003)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언어연구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문맥색인 활동은 많은 학생들에게 어휘학습(단일어, 연어 등)에 동기를 부여해주었고, 콘코던스를 매우 유용한 학습 도구로서 인식을 하였다고 결론하였다. Kim과 Chun(2008)의 EFL 대학생 연구에서도 코퍼스 활용 훈련을 받은 참여자들은 코퍼스기반 DDL 활동은 어휘, 문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료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어휘의 문맥상 적절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데도 자신감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코퍼스기반 CALL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어휘, 문법 학습에 있어 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총 7편). Sun과 Wang(2003)은 대만의 대학생연구에서 귀납적 집단과 연역적 집단의 비교실험연구를 통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언어를 학습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Hong과 Oh(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문법지도방식과 콘코던스 활용한 문법발견학습방식을 두 개의 집단에 각각 제시한 결과 상위집단 학생에게는 콘코던스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Kim과 Ahn(2004)의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교사중심수업보다 코퍼스를 활용한 협력학습이 문법규칙을 수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었다.

셋째, 코퍼스 기반 CALL은 학습내용을 보다 더 쉽게 혹은 정확히 이해가 되고, 더 오래 기억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Chan & Liou, 2005; Cobb, 1997; Gaske

& Cobb, 2004; St. John, 2001). 우선 문법형태를 분석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Gaske & Cobb, 2004; Ko, 2005; Whistle, 1999), 철자의 읽기나 번역에 있어 이해도 좋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Cobb, 1997; St. John, 2001).

넷째, 그밖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ur와 Hegelheimer(2005)는 콘코던스를 통한 어휘, 언어학습으로 얻은 지식은 쓰기능력으로 전이된다고 주장하였다. ESL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퍼스를 활용한 어휘학습을 지도한 후 학생들의 작문과제를 검토한 결과,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서, 코퍼스 실험집단 학생들의 어휘전이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실험집단 학생들은 배운 어휘지식을 더 많이 실제 작문에 활용하였고, 사용상의 정확성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작문향상에 대한 효과성은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Charles, 2007; Lee & Swales, 2006; Sun, 2007). 또한 코퍼스를 활용한 학습은 외국어 학습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Kim과 Chun(2008)은 대학생 학습자들이 코퍼스기반 DDL 훈련을 한 후 언어, 어휘를 학습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코퍼스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오류를 스스로 분석하고 교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Lee, 2004)나, 코퍼스를 통하여 교사들이 자신과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소개되었다(O'Keeffe & Farr, 2003).

2) 코퍼스 기반 CALL은 누구에게 효과적인가?

코퍼스 CALL 은 성인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논문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연구대상을 밝힌 논문 45편 중 40편이 대학생이상의 연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코퍼스 학습을 연구하였다. 그 외 연구는 고등학생 4편 중학생 1편으로 거의 90%의 논문이 성인학습자에 적용한 결과이다. 코퍼스 연구가 성인 학습자에게 치중되어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수준이 높은 경우에 더 적절한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Hong과 Oh(2008)의 연구에서는 코퍼스활용 콘코던스활동은 상위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고, Kaur와 Hegelheimer도 중급이상의 학습자에게 적절한 것으로 설명하여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코퍼스 CALL이 반드시 성인이나 중급이상의 언어능력을 지닌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반박하는 연구들도 있다. Yoon(2005)과 Boulton(2008 a, b)는 초급수준의 영어능력의 학습자에게도 코퍼스기반 언어학습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St. John(2001)은 초급수준의 학습자에게 코퍼스기반 어휘지식습득이 효과적이라고 결론하였다. Kim과 Ahn(2004)은 보다 구체적으로 귀납적

접근방식은 하위학습자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문제해결의 성취감을 느끼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적용한 사례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므로, 적용 가능한 대상의 연령과 언어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과 환경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도가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코퍼스 기반 CALL은 어떻게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인가?

검토한 논문 중 상당수의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작문 오류를 스스로 분석을 하는 데에 코퍼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초기 논문에서는 학습활동을 통한 문법형태인식의 방식이 널리 쓰여진 반면, 최근 5-6년간 발표된 논문의 상당수(총 9편)가 오류분석이나 ‘코퍼스 활용 자기작문교정’의 지도법의 효과성 연구였다(Charles, 2007; Lee & Swales, 2006; Owen, 1996; Sun, 2007). 즉 작문과정에서 자신의 사용한 어휘나 표현 구문 등의 정확성 적절성 여부를 콘코덴싱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언어, 단일어, 혹은 문법 등을 지도하는 데에 활용하기 보다,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쓰기 과정에서 코퍼스기반 CALL 활동이 활용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퍼스기반 CALL은 실제 사용하는 활동에서 보다 더 많은 효과가 검증되었다(총 19편). 이들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활동은 콘코덴서를 활용하여 목표어의 코퍼斯拉인 만들기를 하거나, 작문과정에서 오류수정을 위한 코퍼스활용 작문분석이 주로 제시되었고,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V. 결 론

코퍼스기반 CALL 연구는 상당수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험결과를 통한 근거 제시나 지도 방식 다양성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코퍼스 활용서나 활동을 소개하는 문헌을 검토해보면 다양한 학습자 연령 및 언어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으나, 실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이 대부분 검토되거나 활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

을 통하여 앞으로의 코퍼스 CALL연구에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성인 및 고급수준의 학습자 이외의 다양한 연령과 언어수준의 학습자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다양한 측면의 효과성 분석도 시도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연구에서 귀납적 어휘문법지도, 언어 지도, 학습자의 작문오류수정을 통한 학습 자율성 향상 등의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코퍼스기반 CALL은 앞으로 영어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연구영역이다. 더 많은 교사에 의해서 학교현장에서 활용될 때 연구영역도 더욱 넓어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들이 생산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영어교육자들의 교육에 실질적인 정보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Batstone, R. (1995). Product and process: Grammar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In M. Bygate, A. Tonkyn & E. Williams, (Eds.), *Grammar and the language teacher* (pp. 224-236). London: Prentice Hall.
- Benson, P.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autonomy in language learning*. Harlow, UK: Pearson Education.
- Chambers, A. (2005). Integrating corpus consultation in language studies. *Language Learning and Technology*, 9(2), 111-125.
- Chan, T., & Liou, H. (2005). Effects of web-based concordancing instruction on EFL students' learning of verb-noun collocations.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18(3), 231-250.
- DeWitt-Brinks, D., & Rhodes, S. C. (1992, May). *Listening instruction: A qualitative meta-analysis of twenty-four selected stud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42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Miami, FL.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1721.
-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n, M., & Xu, X. (2002). An evalutaion of an online bilingual corpus for the self-learning of legal English. *System*, 30, 47-63.
- Flowerdew, J. (1991). Corpus-based course design. In J. C. Milton & K. Tong (Eds.),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pp. 31-34). Hong Kong: The Hong

- Kong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The City Polytec of Hong Kong.
- Hadley, G. (1997). Sensing the winds of change: An introduction to data-driven learning. *RELC Journal*, 33(2), 99-124.
- Higgins, J. (1991). Which concordancers: A comparative review of MSDOS software. *System*, 19, 91-100.
- Higgins, J. (1991). Which concordances: a comparative review of MSDOS software. *System*, 19(1-2), 91- 100.
- Higgins, J., & Johns, T. (1984). *Computers and Language Learning*. London: Collins.
- Honeyfield, J. (1989). A typology of exercises based on computer generated concordance material. *Guidelines*, 11(1), 42-50.
- Johns, T. (1988). Whence and Whither classroom concordancing? In T. Bongaerts (Ed.), *Computer applications in language learning* (pp. 9-33). Dordrecht: Foris.
- Johns, T. (1991). Should you be persuaded: Two examples of data-driven learning. *ELR Journals*, 4, 1-6.
- Ko, M. H. (2005). Korean university student use of phrasal and one-word verbs and concordance-bas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1(2), 1-39.
- Levy, M. (1990). Concordances and their integration into a word processing environment for language learning. *System*, 18(2), 177-188.
- Lewis, M. (1993). *Lexical approach*. Boston: Thomson & Heinle.
- Long, M., & Crookes, G. (1992). Three approaches to task-based syllabus design. *TESOL Quarterly*, 26(1), 27-56.
- Ma, B. K. C. (1993). Small-corpora concordancing in ESL teaching and learning. *Hong Kong Papers in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16.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65119).
- McDonough, S. H. (1986). *Psychology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ondon: Unwin Hyman.
- O'Keeffe, A., & Farr, F. (2003). Using Language Corpora in Initial Teacher Education: Pedagogic Issu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TESOL Quarterly*, 37(3), 389-418.
- O'Keeffe, A., McCarthy, M., & Carter, R. (2007). *From corpus to classroom: Language use an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wen, C. (1996). Do concordances require ot be consulted? *ELT Journal*, 50(3), 219-224.
- Roders, E. M. (1981). *Methodology for meta research*. Paper presented as presidential

address at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Minneapolis.

- Stevens, V. (1995). Concordancing with language learners: Why? when? what? *CAELL Journal*, 6(2), 2-10
- Thurstun, J., & Candlin, N. C. (1998). Concordancing and the teaching of the vocabulary of academic English.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7(3), 267-280.
- Whistle, J. (1999). Concordancing with students using an 'off-the-Web' corpus. *ReCALL*, 11(2), 74-80.
- Willis, J. (1996).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Harlow, U.K.: Longman Addison-Wesley.
- Witkin, B. R. (1990). Listening theory and research: The state of the art.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Listening Association*, 4, 7-32.
- Won, M. (2003). Current trends in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vocabulary as L2. *English Language Teaching*, 15(4), 247-275.
- Won, M. (2004). Korean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of English phrasal verbs. *English Language Teaching*, 16(1), 79-97.

부 록

분석된 코퍼스기반 CALL 연구목록

<외국논문 총 54편>

1	Aston, G. (2002). The Learner as corpus designer. <i>Language & Computer</i> , 42, 9-25
2	Belz, J. A. (2008). The pedagogical mediation of a developmental learner corpus for classroom-based language instruction. <i>Language Learning & Technology</i> , 12(3), 33-52.
3	Bernardini, S. (2002). Exploring new directions for discovery learning. <i>Language & Computer</i> , 42, 165-182.
4	Bloch, J. (2009). The design of an online concordancing program for teaching about reporting verbs. <i>Language Learning & Technology</i> , 13(1), 59-78.
5	Boulton, A. (2006, July). <i>Bringing corpora to the masses: Free and easy tools for language learning</i> . 7 th Teaching and Language Corpora Conference, NBF/Universite Paris 7-Denis Diderot: Paris, France.
6	Boulton, A. (2007). But where's the proof? The need for empirical evidence for data-driven learning. <i>Proceedings of the BAAL Conference 2007</i> .
7	Boulton, A. (2008). Looking for empirical evidence of data-driven learning lower levels. In Barbara Lewandowska-Tomaszczyk, (ed.). <i>Corpus at Linguistics, Computer Tools, and Applications: State of the art</i> , Frankfurt: Peter Lang.
8	Boulton, A. (2008). DDL: Reaching the parts other teaching can't reach?. <i>Proceedings of 8th Teaching and Language Corpora Conference</i> , Lisbon Retrieved March 20, 2009 from the World Wide Web
9	Boulton, A. (2009). Data-driven learning: Reasonable fears and rational reassurance. <i>Ind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i> , 35(1), 1-28.
10	Chambers, A. (2005). Integrating corpus consultation in language studies. <i>Language Learning & Technology</i> , 9(2), 111-125.
11	Chan, T., & Liou, H. (2005). Effects of Web-based Concordancing Instruction on EFL Students' Learning of Verb-Noun Collocations. <i>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i> , 18(3), 231-250.
12	Charles, M. (2007). Reconciling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graduate writing: Using a corpus to teach rhetorical functions. <i>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i> , 6, 289-302.
13	Chen, W., Warren, M., & Xun-feng, X. (2003). The language learner as language researcher: putting corpus linguistics on the timetable. <i>System</i> 31, 173-186.
14	Chen, Y. (2004). The Use of Corpora in the Vocabulary Calssroom. <i>I-TESL-J</i> , 10(9), Retrieved March, 31, 2009 from the World Wide Web http://iteslj.org/Techniques/Chen-Corpora.html .

15	Cheng, W. (2007). Concgramming: A Corpus-Driven Approach to Learning the Phraseology of Discipline-Specific Texts. <i>Computer Resources for Language Learning</i> , 1, 22-35.
16	Chujo, K., Utiyama, M., & Mirua, S. (2006). Using a Japanes-English parallel corpus for teaching English vocabulary to beginning-level students. <i>English Corpus Studies</i> , 13, 153-172.
17	Cobbs, T. (1997). Is there any measurable learning from hands-on concordancing?. <i>System</i> , 25(3), 301-315.
18	Cobb, T. (1999). Breadth and Depth of Lexical Acquisition with Hands-on Concordancing. <i>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i> , 12(4), 345-360.
19	Cobb, T. (2007). Computing the vocabulary demands of L2 reading. <i>Language Learning & Technology</i> , 11(3), 38-64.
20	Davis, B., & Russell-Pinson, L. (2004). Concordancing and Corpora for K-12 Teachers: Project MORE. <i>Language and Computer</i> , 52, 147-169.
21	Flowerdew, L. (2008). Integrating 'Expert' and 'Interlanauge' computer corpora findings on causality: Disveries for teachers and students. <i>English for Specific Purposes</i> , 17(4), 329-345.
22	Frankenberg-Garcia, A. (2005). Pedagogical uses of monolingual and parallel concordances. <i>English Language Teaching</i> , 59(3), 189-198.
23	Flowerdew, J. (1996). <i>Concordancing in Language Learning. The power of CALL</i> . Houston, TX: Athelstan.
24	Flowerdew, L. (2003). A Combined Corpus and Systemic-Functional Analysis of The Problem-Solution Pattern in a Student and Professional Corpus of Technical Writing. <i>TESOL Quarterly</i> , 37(3), 489-511.
25	Gaske, D., & Cobb, T. (2004). Can learners use concordance feedback for writing errors?. <i>System</i> , 32, 301-319.
26	Gavioli, L. (2002). Some thoughts on the problem of representing ESP through small corpora. Kettermann, B. & Marko, B., (ed), <i>Teaching and Learning by Doing Corpus Analysis</i> . Atlanta: Rodopi.
27	Godwin-Jones, B. (2001). Emerging Technologies: Tools and Trends in Corpora Use for Teaching and Learning. <i>Language Learning & Technology</i> , 5(3), 7-12.
28	Granger, S. (2003). The 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 English: A New Resource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i>TESOL Quarterly</i> , 37(3), 538-545.
29	Hafner, C., & Candlin, C. (2007). Corpus tools as an affordance to learning in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30	Horst, M., Cobb, T., & Nicolae, I. (2005). Expanding academic vocabulary with an interactive on-line database. <i>Language Learning & Technology</i> , 9(2), 90-110.
31	Harwood, N. (2002). Taking a lexical approach to teaching: principles and problems. <i>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i> , 12(2), 139-155.

32	Kenndy, C., & Miceli, T. (2001). An evaluation of intermediate students' approaches to corpus investigation. <i>Language Learning & Technology</i> , 5(3), 77-90.
33	St. John, E. (2001). A case for Using a Parallel Corpus and Concordancer for Beginners of a Foreign Language. <i>Language Learning & Technology</i> , 5(3), 185-230.
34	Kaur, J., & Hegelheimer, V. (2005). ESL Students' Use of concordance in the Transfer of Academic Word Knowledge: An exploratory study. <i>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i> , 18(4), 287-310.
35	Koosha, M., & Jafarpour, A. A. (2006). Data-driven Learning and teaching collocation of prepositions: the case of Iranian EFL adult learners. <i>Asian EFL Journal Quarterly</i> , 8(4), 192-209.
36	Lee, D., & Swales, J. (2006). A corpus-based EAP course for NNS Doctoral students: Moving from available specialized corpora to self-com;iled corpora. <i>English for Specific Purposes</i> , 25, 56-75.
37	Ma, B. (1993). Small-corpora Concordancing in ESL Teaching and Learning. Hongkong Papers in <i>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i> , 16, 11-30.
38	Miceli, T. & Kennedy, C. (2002). An apprenticeship with the CWIC corpus: A tool for learner writers in Italian. In Kennedy, C. (ed.) <i>Proceedings of workshop Innovations in Italian Teaching</i> (83-94). Brisbane: Griffith University;
39	Mishan, F. (2004). Authenticating corpora for language learning: a problem and its resolution. <i>English Langue Teaching</i> , 58(3), 219-227.
40	Mudraya, O. (2004). Need for data-friven instructionof engineering English. <i>IEEE Transactions of Professional Communication</i> , 47(1), 65-70.
41	O'Keeffe, A., & Farr, F. (2003). Using Language Corpora in Initial Teacher Education: Pedagogic Issu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i>TESOL Quarterly</i> , 37(3), 389-418.
42	Owen, C. (1996). Do concordances require to be consulted?. <i>ELT Journal</i> , 50(3), 219-224.
43	Salsbury, T., & Crummer, C. (2008). Using teacher-developed corpora in the CBI classroom. <i>Englsih Teaching Forum</i> , 2, 28-37.
44	Shei, C., & Pain, H. (2000). An ESL Writer's Collocational Aid. <i>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i> , 13(2), 167-182.
45	Sun, Y. (2007). Learner perceptions of a concordancing tool for academic writing. <i>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i> , 20(4), 323-343.
46	Sun, Y., & Wang, L. (2003). Concordancers in the EFL Classroom: Cognitive Approaches and Collocation Difficulty. <i>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i> , 16(1), 83-94.
47	Todd, W. (2001). Induction from self-selected concordances and self-correction. <i>System</i> , 29, 91-102.
48	Turnbull, J., & Burston, J. (1998). Towards Independent Concordance Work for Students: Lessons from a Case Study. <i>On-CALL</i> , 12(2), 10-21.

49	Thurstun, J., & Candlin, N. C. (1998). Concordancing and the Teaching of the Vocabulary of Academic English. <i>English for Specific Purposes</i> , 17(3), 267-280.
50	Tsui, A. B. M. (2005). ESL teacher's questions and corpus evidence. <i>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i> , 10(3), 335-356.
51	Whistle, J. (1999). Concordancing with students using an 'off-the-Web' corpus. <i>ReCALL</i> , 11(2), 74-80.
52	Xun-feng, X., & Fan, M. (2002). An Evaluation of an online bilingual corpus for the self-learning of legal English. <i>System</i> , 30(1), 47-63.
53	Yeh, Y., Lou, H., & Li, Y. (2007). Online synonym materials and concordancing for EFL college writing. <i>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i> , 20(2), 131-152.
54	Yoon, H., & Hirvera, A. (2004). ESL student attitudes toward corpus use in L2 writing. <i>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i> , 13, 257-183.

<국내논문 17편>

1	Blappert, T., (1998). Data-driven learning: Theoriy and classroom implementation. Proceedings of the 1997 Korea TESOL Conference, 11-18.
2	Cho, E. (2006). Teaching English Lexical semantics with condcordancing corpora. <i>Discourse and Cognition</i> , 13(3), 209-228.
3	Han, I. (1999). Conocrdancing in Linguistic Research and language learning. <i>Studies in Language</i> , 15(2), 251-260.
4	Hong, S., & Oh, S. (2008). The effects of corpus-based learning of vocabulary and grammar on Korean high-school students. <i>English Language Teaching</i> , 20(1), 261-283.
5	Kim, H., & Ahn, B. (2004). Effects of corpus based collaborative learning on the intake of grammar rules. <i>Foreign Languages Education</i> , 11(2), 325-347.
6	Kim, H., & Chun, S. (2008). Fostering lexis awareness and autonomy by corpus-based data-driven learning. <i>English Teaching</i> , 63(2), 213-235.
7	Kim, S. (2007). Corpus and English education. <i>English Teaching</i> , 62(2), 281-307.
8	Kim, Y. (2001). Use of concordancing in EAP vocabulary teaching. <i>Journal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i> , 17(1), 1-19.
9	Ko, M. (2005). Korean University Student Use of Phral and One-Word Verbs and concordance-Based Learning. <i>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i> , 21(2), 19-39.
10	Lee, D. (2004). A Computer-Aided Research into Error Analysis of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i>Foreign Languages Education</i> , 11(4), 133-160.
11	Lee, E. (2008). An analysis of corpus-based research on TEFL and Applied Linguistics. <i>English Teaching</i> , 63(2), 283-306.
12	Lee, S. (1999). Corpus의 활용방안: Data-Driven Learning. <i>영어학연구</i> , 8, 203-220.
13	Lee, S. (2003). "Pour boiling water?" or "Pour boiled water?". <i>Foreign Languages Education</i> , 10(4), 87-100.

14	Lee, S. (2004). Learner corpora-based error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in English classes. <i>Foreign Languages Education</i> , 11(3), 33-57.
15	Min, S. (2004). Citation Practices in Academic Corpora: Implications for ESP writing. <i>영어어문교육</i> , 13(3), 113-126.
16	Sung, I. (2007). Developing a Lesson Plan for the Corpus-based vocabulary Teaching. <i>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i> , 25(4), 175-196.
17	Yoon, H. (2005). Corpus-based Studies in L2 Teaching: Implications for an EFL context. <i>English Teaching</i> , 60(2), 285-305.
18	Yoon, H. (2005). L2 Student L2 Students Collocation Learning Through Corpus Use: An Exploratory Study. <i>Foreign Languages Education</i> , 12(3), 91-107.

교육단계(Applicable levels):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코퍼스(Corpus), 콘코던스(concordance), 코퍼스기반 CALL (corpus-based CALL), 데이터추론학습(Data-Driven Learning), 어휘 중심 교수법 (Lexical approach), 질적메타분석 (qualitative meta-analysis)

김 혜 영(책임)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02) 820-5399
Cell Phone: 010-2790-5810
E-mail: englishnet@cau.ac.kr

전 수 인(공동)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031) 705-0321
Cell Phone: 011-262-7339
E-mail: sooic@unitel.co.kr

Received in March, 2009

Reviewed in April,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y, 2009